

요절복통
여래네 집
#30. 남자와 군대
스튜디오들

여자들은 애낭순 순간을 평생 못 잊는다고 하고 남자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가 평생의 레퍼토리가 된다고 합니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도 애가 안 나와서...

아빠가 군대 생활을 했던 강원도 울진까지는 얼마나 추운지 조금씩 누면 바론 얼어 붙었어.

우와, 세상상에.

어머나, 저런!

아빠, 정말이야?

재미있는 건 그런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여자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가, 다른 얘기는 없었어?

그럼 축구 얘기하게.

아이참, 우리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좋아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를 하지 뭐.

못살아.

그래도 남자들은 어느 자리건 얘기가 무익으면 바꾸지 않고 군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육본(육군본부)에서 암로병으로 입영했기 때문에 발길에 채이는 게 다 별이었는데. 그러니 대장소라도 할라치면 육군대령이 유리창을 닫고 대위들은 화장실을 치웠지.

우와, 정말. 전방에서 근무한 나는 별은쿠녕 별 그림자도 한번 구경 못하고 제대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자들의 군대 얘기에는 두 가지 패턴 밖에 없답니다.

내가 철책에서 근무할 때는 물이 구겨져 겨울에는 눈을 녹여서 밥을 해먹고 여름에는 밧줄에 밥을 말아 먹었지.

크, 맞아. 나는 한겨울에 옷을 잔뜩 꺼입고 보호 서는데 얼마나 옷을 많이 꺼입었는지 가슴간 담배를 찌고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

자기는 군대생활을 너무 편하게 했다. 아니면 너무 힘들게 했다. 이 두 가지.

실상은 젊음을 저당잡혔다는 것만으로도 다 마음 고생은 비슷비슷했을 텐데 말예요.

아, 언제 된 거냐.

제가 몇 일 남았지.

또 하나 재미있는 건 20대 때 군대를 면제 받은 친구들이 갔다는 친구들보다 군대의 생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다 휴가 나온 친구들 안쓰러워서 챙겨주다 보니 만날 듣는 게 그런 얘기들 뿐이어서.

너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전방은 어저고 저저고, 후방은 어저고 저저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에서 생활하려면 이리이리하네...

평소에는 별로 과장이 없는 여대 아바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아바가 팀스포인트 훈련을 나가 미군 헬기를 얻어다 가져도 좋겠네.

우와, 아바. 진짜 헬기 컴퓨터를 터냈어?

물론이지, 형이뿐이나. 탱크, 보트 등 안 타본 게 어디 있다고.

실은 탱크는 열병이 매달려 가본 게 전부고 보트도 도하 훈련 때 배를 하나 건너본 게 전부지만.

우와

아빠, 군대 헬기 컴퓨터 타고 뭐했어?

뭐 하긴, 5분 얻어다 원래 얻어왔던 지리로 돌아오느라고 꼬박 4시간 걸려 3개의 산을 넘어왔지 뭐.

호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웃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 없다. 한 사람당 5초씩 줄 테니 목욕은 끝내도록.

5초 안에 옷도 다 못 벗겠다.

아, 누가 내 코비트 훑어갔다.

사실 같으면 뭘 할 수 없는 일이지.

아이고, 끝없이 내려오는 명량. 그런데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명령은 없으니...

박박

여래아빠는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괜한 웃음이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자도 졸리던지.

가장 젊고 외향적인 시기에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야 했으니.

우리 애들 대학원 공부하는 거야.

대원 그런 일이 없었어?

동일이 도거나 군인이 전부 직업화되면 마음 가짐이 달라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한 잔.

괜히 술 한 잔 더 마실 여유를 만들고 싶거든.

그래도 군대에 갔다는 걸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할만한 건 아니지만.

그때 아니었으면 그런 경험을 어디에서 해 보았겠어.

그게야 당근배다. 나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약속을 같이하고서.

아휴~ 시끄러워.

여래야.

그럼습니다. 웬든 그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지요.

우리 여래, 어서 빨리 군대 안 가도 되는 좋은 세상 찾으면 좋겠다.

아빠 몰랐어? 오빠 말이 군인이잖아.

할아버지도 장군님이라고 하셨잖아.

호호~

가우이에 놀렀나보네.

군대 꿈인가봐요.

시...정 하겠습니...다.

이주일의 화두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은 고도의 정신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달력 · 불교용품 · 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p>불교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양초, 향, 다포, 약세사리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공단품,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예수재용품, 영가웃, 탑다라니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p>불교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자비도량합법, 성불합시다 	<p>불교달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6절(大) (30.5×31.0cm) ·12월 (25.8×26.5cm) ·차절이 (9.0×15.5cm) ·미니 (8.9×9.5cm) ·다이러리 (9.5×13.4cm) ·탁상 (26.2×19.0cm) ·한지 (30.0×45.5cm) ·행복로 가는 길(18.1×20.0cm)
--	--	--

12월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시요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승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053-01-26962 (주)현대불교신문사